순천시,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 개최

11월 1일부터 3일간 국가정원
시민 참여 대중친화적 축제로
예비 창작자 재능 선보일 기회
비즈니스 프로그램 매일 진행
"문화산업의 메카 순천 만들것"

순천시가 내달 1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All Content Garden)'을 연다.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은 순천이 올해 처음 시도하는 문화콘텐츠 축제다.

이번 페스티벌은 그간 대도시에서 실내 컨벤션, 부스 행사 위주로 치러왔던 딱딱한 형식에서 탈피해 오천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 순천만국가정원 일대의 푸른 자연을 무대로 삼았다. 행사 부제인 'All Content garden' 또한 세상의 모든 콘텐츠들이 모여드는 정원을 의미한다. 컴퓨터와 핸드폰 등 가상 공간에 머물러 있던 문화콘텐츠, 나의 '최애' 캐릭터가 화면 밖으로 뛰쳐나와 정원에서 어우러지는 동화 같은 축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업계 전문가들 위주로 교류하는 산업전이나, 이미 정상에 오른 유명 창작자들 간의 경쟁으로 '그들만의 리그'라는 힐난을 받아왔던 행사가 아닌, 학생들을 비롯한 예비 창작자와 일반 시민들까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대중친화적인 콘텐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먼저 1일 개막식에서는 애니메이션 OST 드론쇼를 시작으로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미카엘 조직위원장,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등 문화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산업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시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축제는 창작자를 꿈꾸는 학생, 콘텐츠 관련 산업 종사자와 기업, 가족 단위 시민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팝업 전시에서는 한국 대표 애니메이션 '아기공룡 둘리-얼음별 대모험'과 이현세 작가의 '공포의 외인구단', 영국의 세계적인 그림책 '월리를 찾아서'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 모바일 게임 '쿠키런'과 함께하는 캠크닉(캠핑+피크닉), '캐치! 티니핑' 싱어롱쇼(영화관 내에서 자유로운 분위기로 다같이 감상할 수 있는 상영회), 열기구 체험, 가수 솔지(EXID)와 안예은의 OST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로 꽉 채워 모두가 세대를 초월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웹툰,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창작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갈고닦은 재능을 전세계 전문가들 앞에서 선보일 수 있는 장도 열린다. 순천시는 축제에 앞서 개최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훈격의 학생 애니메이션 어워즈, AI 영상 공모전의 수상작을 오천그린광장 야외상영회에서 공개한다. 세계적인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자신의 작품을 상영하는 기회가 되는 셈이다. 한편 명사와의 토크콘서트에서는 웹툰 '미생', '이끼'등을 만들고 드라마, 영화로 제작한 경험이 있는 윤태호 작가, 픽사 근무 경험이 있는 에릭오 애니메이터가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산업 관계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매일 진행된다. 국가정원 내 워케이션 센터에서는 국내·외 기업 40여개 사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파티와 B2B미팅 등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어울림도서관에서 열리는 기업설명회는 순천 전략투자 기업인 로커스와 케나즈 등을 포함한 투자의향 기업, 협회, 대학 등이 모여 콘텐츠 트렌드와 정보를 교류하고 콘텐츠 수출입을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문화콘텐츠란 건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만화책,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등 늘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어 왔다"며 "6만평 규모의 오천그린광장에서 축제를 열게 된 건, 광장이 누구에게나 열린 곳이듯이 축제 또한 그렇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노 시장은 이어 "창조의 원천이자 영감의 충전지인 정원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라는 살을 채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도시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문화콘텐츠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 뛰어난 작품들이 순천으로 모여들고 청년, 학생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문화산업 메카로 순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순천=배서준 기자

고흥군, 유자 과원 관리 교육
생산량 예측 설문조사도 진행

고흥군은 지난 22일 두원농협에서 유자 재배 농가 70여명을 대상으로 '유자 수확 전·후 과원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로 인해 유자나무가 고사하고 병해충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재배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여름철에 발생한 진딧물, 응애, 총채벌레 등의 병해충 방제와 동해 예방 대책인 짚 멀칭, 요소 엽면 시비, 겨울철 물주기 등의 겨울철 관리 방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한, 올해 유자 생산량을 사전에 파악해 농가들의 수익 예측과 유통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이 설문조사는 재배 면적, 예상 수확량,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정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농업인은 "과원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예상 생산량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올해의 기후와 병충해 상황을 반영해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고흥=심정우 기자**

'광양관광 활성화 포럼' 개최
내일 광양예술창고 소교동B서

민선 8기 비전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을 기치로 천만 관광도시로 비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광양시가 글로벌 광양관광 신르네상스를 꿈꾼다.

광양시는 29일 광양예술창고 소교동B에서 '광양관광 활성화 포럼'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광양시관광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광양 관광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관광분야 전문가와 종사자, 시민, 관계 공무원 등 각계각층 100여 명이 참석한다.

포럼의 첫 순서는 주제발표다. 정희정 서경대 교수는 '글로벌도시 광양 신르네상스', 유은미 세명대 교수는 '아이언 글로벌 시티 이미지 메이킹'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정희정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이 이어진다. 이상민 (주)케이피이엠 대표이사, 정석순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 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인희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이소윤 제주관광대 교수 등 유수의 관광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명만 광양시관광협의회장은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광양 관광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이번 포럼이 글로벌 광양관광 신르네상스를 꿈꾸는 민관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광양은 백운산, 섬진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제철소, 항만 등 풍부한 산업자원을 보유한 도시"라며 "시의 특색을 융합한 관광정책과 랜드마크형 관광인프라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포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포럼은 광양 관광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관광협의회(061-792-5301)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지난 24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농업경쟁력 향상과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운영해 온 2024년 구례군 농업인대학의 졸업식을 개최됐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제16기 농업인대학 졸업식

구례군은 지난 24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농업경쟁력 향상과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운영해 온 2024년 구례군 농업인대학의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은 김순호 군수, 장길선 의장 및 내빈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졸업증서 수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농업인대학은 지난 3월 7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자원식물 과정을 운영해, 구례 자원식물인 고사리, 두릅, 야생화 등의 재배 관리와 병해충 방제, 농작업 안전 재해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50명의 전문 농업경영인이 배출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졸업생 중 12명은 약용식물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도 이뤄냈다.

특히, 우수한 성과를 보인 하태수(구례읍) 씨는 농촌진흥청장상을, 문필자(마산면), 한규진(광의면), 송기오(구례읍) 씨는 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구례=김상현 기자**

고흥군, '제40회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 최우수상

고흥군이 '제40회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에서 암송아지 분야 최우수상과 번식 3부 우수상을 비롯해, 우수 시군 및 축협 부문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한우 경진대회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한우가 자체 심사를 거쳐 6개 부문(고급육 품평회, 암송아지, 미경산우, 번식 1·2·3부)에서 경합을 펼쳤으며, 총 154두가 출품돼 비대면 심사로 진행되었다.

고흥군은 우량한우 분야에서 암송아지 최우수상(동강면 박지요), 번식3부 우수상(점암면 신삼식), 우수 축협 우수상과

우수 시군 우수상도 수상하며 유자골 고흥 한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편, 올해 한국종축개량협회 통계에 따르면, 유자골 고흥한우는 초우량한우 보유 현황(53두)에서 전국 2위, 우량암소 보유 현황(617두)에서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축산물품질평가원 판정에서 도체등급(1++이상) 출현율 34.7%로 전국 2위를 기록하며, 최고급육의 한우를 생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선 8기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비육우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량암소 육성 지원을 통해 번식우 경쟁력도 높여 고흥한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SNS 분야 9년 연속 수상
여수시 뉴미디어홍보팀

여수시 홍보담당관의 '뉴미디어홍보팀'이 SNS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을 9년 연속 수상했다.

지난 17일 서울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여수시가 기초지자체 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SNS 관련 분야 국내 최고 권위 있는 상이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콘텐츠의 질 △스토리텔링 △의사소통성 등 전체적으로 여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여수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톡 등 7개 매체에 공식 SNS 채널 '여수이야기'를 개설하고 소통을 강화했다.

이들 채널을 통해 주요 시정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와 생활정보를 제공, 시민들의 호응으로 지난 2018년 8만8000여 명이었던 구독자 수가 14만여 명까지 늘었다. 특히, 민선 8기 정기명 여수시장의 기조인 '소통과 화합'이라는 철학과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의 비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알린 시 홍보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시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자 '참여형 SNS 서포터즈'를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 왔다. 이들은 여수시정은 물론 여수의 매력과 생생한 정보를 대중에 전하고 있다.

현재 24명의 9기 서포터즈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4개 채널에서 합동 취재와 미션 수행(시정·관광·생활정보 홍보), 콘텐츠 발굴 등으로 활발히 여수를 홍보하고 있다.

시에서도 이들의 활동을 돕고자 'SNS 서포터즈 운영 지침'을 통해 각종 인센티브와 분기별 워크숍, 서포터즈데이, 서포터즈 단톡방 운영 등을 통해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